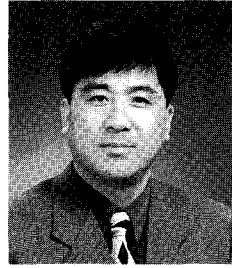


최근 중국의 양계산업 현황



곽 춘 옥

- (주) 건지 대표이사
- 중국 건지농목기계유한공사 사장

이 느덧 중국에 발붙인 것도 2년여가 다 되어간다. IMF를 겪고 있던 시기에 건지농목기계유한공사를 중국 대련에 설립하고 한국에서는 물론 중국에서까지 IMF를 겪은 셈이니 솔직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중국경제도 많이 어려웠고 이제 한국은 IMF 터널을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의 경제는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

사실 책에서만 배웠던 디플레이션을 중국에 와서 체험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인플레이션에만 길들여져 왔던 필자에게 비록 중국에서라도 실전을 통하여 정확하게 공부하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가 IMF라는 경제대란을 겪을 때 중국은 소비가 침체되어 지난 2년여 동안 소비진작책을 내놓았지만 물가가 연속 28개월 동안

하락현상을 지속했으며 아직도 그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다. 심지어 작년 말에는 중국공무원의 봉급을 파격적(35%내외)으로 인상하고 은행대출도 늘리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가격을 낮추면서 소비를 부추겼지만 “아무도 돈을 안쓰는 상태가 계속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양산된 실업자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과거 국가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주던 것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과 불안심리에 기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작년에는 외국자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까지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했기에 아직 자금력 면에서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으

로 언제부터 고민하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이러한 중국경제와 맞물려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중국농업인구를 감안하면 향후 농축산업의 향방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변수이며 특히 작년 4월에 미국과 “중미농업합작협회”를 체결한 이후 연말에는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어 WTO의 공식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과 지척에 있는 우리의 입장정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에 WTO를 전후한 중국농축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WTO와 중국의 농축업

일단 중국은 WTO에 가입하는 것을 반기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의 농축산업이 WTO로 인하여 개방된다해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생력을 갖춘 중국산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현재 고관세정책을 펴왔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설령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어야 하는 WTO의 규정을 준수한다해도 그 기간이 충분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이다. 오히려 그 동안 WTO에 가입할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부정보다는 긍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쌀, 밀, 옥수수, 콩 등 주요농산물이 최근 10년동안 약 10%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여 국제가격보다 7~10%가

높아 국제시장에서 열세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중국에 국제시장에의 진입을 위한 자극제가 되어 경쟁력제고라는 부수효과를 노릴 수 있기에 병이 아닌 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중적이며, 글 등 과일은 품종, 저장 및 가공기술의 낙후성과 생산성약화로 많이 고전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반면에 수산품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으며 특히 왕새우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축산방면에서는 쇠고기와 우유는 생산원가가 높으면서 생산효율이 떨어지기에 대단히 열세에 처할 것이고 계육은 현재 다소 열세이지만 전망 있는 산업이며 양돈산업은 현재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간간이 한국에도 수출했던 옥수수가 다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주로 북방지역에 위치한 옥수수단지에서 생산하는 옥수수가 영양함량이나 외관에서 이미 미국산에 비하여 뒤지면서 아울러 국제가

격도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제부터라도 옥수수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 따라 이미 지적한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때문에 사료용 옥수수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할 일이다. 밀 역시 이미 미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현재 년 2백만 톤의 밀수입을 2004년에는 930만 톤으로 늘려 수입한다는 기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콩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표1. 중국의 축산물 수입관세현황

구 분	현재의 수입관세율(%)	2004년까지 조정율(%)
쇠고기	45	12
돼지고기	20	12
닭고기	20	10

특히 중국의 축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살펴 보면 상당히 높는데 표1에서 보듯이 미국과의 WTO협상에서 2004년까지 쇠고기는 현재 45%에서 12%로, 돼지고기는 20%에서 12%로, 가금육은 20%에서 10%로 낮추도록 이미 협의되어 있다.

2. WTO 가입후 중국의 양계산업

1) 산란계

중국의 산란계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매년 약 20%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1998년 계란생산량은 2천만 톤에 달하여 세계총생산량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서는

약 4배의 생산을 하고 있다. 그 결과 1인당 계란소비량을 보면 (표2)에서와 같이 연간 265개로 세계5위에 링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의 수출실적이 9.5억 개로 세계3위를 차지하여 저조했다.(미국 27억 개, 네델란드 10억개 수출)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동안 WTO에 가입하지 않아서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으며 아직 중국농민들이 수출에 대한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 좋은 예로 홍콩은 중국의 경제특별구임에도 불구하고 네델란드 산을 더 많이 수입하였으며 가격 면에서도 1998년 기준 중국산이 Kg당 68.84달러, 미국산 56.98달러, 네델란드산이 72.58달러로 미국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네델란드산에 비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동일한 중국이라는 이점까지 작용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표2. 국민 1인당 연간 계란소비량

순 위	1	2	3	4	5	6
나라명	일본	대만	홍콩	덴마크	중국	미국
1인당계란소비량 (개/년)	347	331	277	270	265	236

(자료발표 : 1999, 강소성 가금과학연구소)

때문에 WTO가입을 계기로 수출에 대한 노력만 기울인다면 홍콩은 물론 일본, T한국에도 수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축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 육계

계육 역시 1998년에 12.9만 톤을 생산하여 세계1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미국의 12.8만톤을 초과하였다.



또한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육질이 독특한 토종닭, 오리 등의 신선육을 선호하는 까닭에 설령 외국 닭고기가 들어온다 해도 냉동육으로 들어와야 하며 중국의 자정학적인 현실로 비추어볼 때 장거리 수송의 문제점 등이 있기에 중국시장을 침투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세계 제2위의 닭고기 수입국이라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특정부위 즉, 닭발, 근위, 날개 등에 한정된 것이며 이러한 부위들은 선진국에서는 선호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게 수입되기에 거의 개의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50만톤, 한국 6만톤, 사우디아라비아 24만톤을 비롯하여 거대 잠재시장인 러시아를 중국의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중국인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미국인의 1/4에 불과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계육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대단히 전망이 밝은 분야로 관측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3) 사료

근본적으로 WTO에 공식 가입하게 되면 사료가격이 내려갈 것이며 좀더 많은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품질을 높이고 생산원가는 낮추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찍이 외국자본들이 들어와 산란계는 물론 육계분야까지 계열화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사료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양계산업과 더불어 발전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WTO의 가입으로 인한 수출입에 따른 국제업무 수행하려면 전문적인 인재양성이 시급하고 만약 각종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어와 국제법에 능통한 전문인의 육성이 절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4) 약품

이러한 양계산업의 발전잠재력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질병이요 이에 따른 약품남용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1998년 1월부터 미국에서 실시하는 HACCP (중국어로 '공해분석임계공제점'이라 해석했음) 와 유럽연맹에서 12월에 발표한 금기약품들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약품을 오·남용하면 자신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가까스로 WTO가입국이 공식화되었을 벽두부터 약물검사에 의한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코카콜라사장이 한 말을 예로 들도 있다. “나의 코카콜라가 부도나지 않는 한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사람이 없으면 초빙할 수 있고 공장건물이 없으면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코카콜라가 넘어지면 은행에서 대출해주지도 않고 사람을 찾아도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만큼 국제시장에서 신용은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조기출하나 생산성향상만을 기대한 나머지 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면 수출전선에 먹칠을 하게 되고 그것은 중국 양계업계의 끝이라는 시각에서 농민들을 선도하며 국익을 위한 양계사양을 부르짖고 있다.

3. 맺음말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은 이미 한국을 양계산물의 수출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을 내세워 농축산물, 그 중에도 양계산물에 대한 수입을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필자가 다녀본 몇 개의 기업은 조만간 한국에 양계산물을 내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있다.

물론 아직은 종축, 영양, 사양, 방역, 설비 등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비하여 낙후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 기술, 자본이 생산의 3요소라고 한다면 분명 원재료에 해당하는 옥수수가 풍부하고 인력이 풍부하며 다만 기술이 모자랄 뿐이다.

그러나 선후진국 모두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균침을 흘리고 있으며 영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오랫동안 기술료를 주면서 배우가 닭은 기술까지 조건 없이 던져주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는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조합하고 비교 검토하며 자체적인 것을 소화해냈을 때 과연 우리가 우습게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중국의 문화유산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투자하며 남들이 만들지 않은 것을 만들고 창조하려고 애쓴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의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것은 필자가 중국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또한 우리의 과거사를 들춰봐도 충분히 예측된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를 부르며 정말 먹을 것이 모자라고 입을 것이 모자라 미국의 원조물에 의지하면서도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일념으로 피땀 흘린 수출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불과 한 세대 전의 일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타올랐던 정열이 지난 세기말에는 곤두박질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러한 맥동이 중국에도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 되고 21세기의 중심축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 전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국제시장에서 타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국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조석으로 먹는 밥상의 거의 절반이 중국산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총체적으로 그 동안 닫혀있었던 중국이 WTO가입을 기점으로 세계 농축산물시장의 판도를 상당히 바꾸어 놓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길지 않은 시간동안이지만 중국에서 느끼고 있는 필자의 생각이고 더구나 지척거리에 있는

한국을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수출시장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 시점에서라도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어차피 이 세상은 비교우위의 원칙에서 경쟁력이 없는 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한다. 몇 년 전만해도 미국산 밀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였던 우리 국민 모두가 현재 먹고 있는 빵이나 라면이 미국산 밀가루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지금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묻고싶다. 또한 UR에 대한 우리의 거부 또한 얼마나 거세었던가. 그러면서 우리는 "신토불이"를 외쳤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파급효과를 주었으며 얼마나 지속되었던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설상가상 축산분야 행정공무원이 줄어들고 축협이 통폐합되는 현실만을 비추어 보아도 우리 산업을 살리기 위한 피눈물나는 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축산업이라는 산업자체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장래는 일본의 축산자금을 통계에서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풍차와 튜울립의 나라라고 했던 네델란드가 비록 풍차는 돌지 않고 서있어도 축산물과 축산설비로 세계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것을 보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형태는 없었는지 이 시점에서라도 돌이켜 보면 좋겠다. 산업이 위축되면 그에 관련된 기업은 물론 공무원을 비롯 학문의 전당이라는 학교나 교직원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정말 준비된 미래는 없고 앞서야 존재한다는 것을 절실히 몸으로 체험하며 가히 앞서가던 우리 조국 한국이 항상 앞서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우리 뒷모습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부족하고 모자랐던 점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좀 더 진일보된 기술과 경영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 축산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기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23)374-8461~2, 팩스 : (0523)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